

감로 이슬을 받아 생수가 연결되면 영생체로 변화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울며불며 매달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며, 그때 신랑되는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승리제단에 모인 남녀노소 모두 시온성의 영적 처녀입니다

여기가 시온성이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처녀들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처녀들입니다. 영적으로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시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쓰여 있죠?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 영모님이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인 구세주를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은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모인 여러분들은 전부 처녀들입니다.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남자와 여자로 늙은이고 늙은이도 다 처녀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영적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역시 영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영적인 처녀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녀로 신랑 되신 주님에게 시집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미혼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을 모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신과 더불어 혼인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시집을 가야,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일신. 바로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될 때에 부부일신이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부기간은 동격이죠? 부부기간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의 신을 여러분들이 모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쟁이 노릇을 해서 결혼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신을 모셔야 됩니다.

지금 구세주한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감로 이슬성신을 내리고 있는데 감로 이슬 성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을 부여주어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신과 더불어 결혼을 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일신이 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되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손에 들고 나갈 등불 준비 됐는요? 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그 등불은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제단의 역사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하우만 나와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틀째 나와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3일째 나와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열흘 나와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21동안 나와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신과 한 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혼하기



구세주 조희성님

까지는 시온성의 처녀입니다. 여기가 시온성인데 시온성의 있는 처녀들이 신랑 되는 주님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매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신랑 되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지만 신랑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어 결혼을 하려면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슬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려야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지 땀땀땀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고 울며불며 매달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신랑되는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생수연결이 되어 은혜가 연결되고 결국 영생체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바로 생수 연결이 되는데 생수 연결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연결되어 은혜가 받게 되면 점점 피가 변하게 되고 몸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다시는 은혜가 떨어지지도 않고 다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신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 나를 할 것 없이,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신을 모셔야 될 입장이니까 신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바로 신을 영접하면 부부일신이 되어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었다고 창조론이 쓰여 있죠?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6천 년 전에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이 세상 만물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창조론 자체는 거짓입니다.

우리 지구 땅 속에 불덩어리가 있고 우주의 별 속에도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땅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은 빛인데 불덩어리입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 터키, 미국에서 지진이 가끔 일어나죠?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지질이 약한 곳을 뚫고 그 불덩어리가 나오거나 그 화산이 터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와 이 세상을 천지개벽시킬 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생명체로 변화합니다

그런데 지구 땅속에 불이 타는 불이라면 땅이 다 타버리고 없겠죠? 그러나 땅 속에 있는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고요 하나님의 불은 타는 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다에 많은 그 바닷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 지구 땅덩어리가 타지 않는 고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이제 그대로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신인 고로 타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의 물도 마르지 아니하고 또 이제 이 세상의 육체가 타지 않는 고로 그대로 있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변화되는 때가 어느 때나 구세주가 나와서 천지개벽할 때입니다. 그때에 세상 우주가 변화가 되는데 생명체로 변화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요, 바로 이 땅덩어리와 이 세상 만물이 다 빛의 생명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002년 2월 15일 말씀 중에서



유리조각 위에 무릎을 꿇고 30일씩 금식 기도를 하다

아픈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지,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30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계속해서 아픔을 느꼈다면 30일 아니라 단 몇 시간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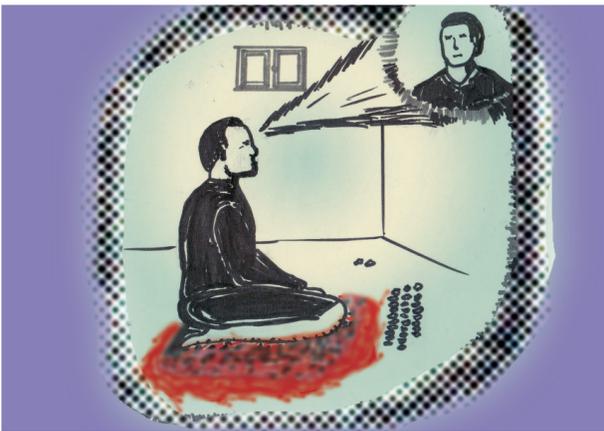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신에 대해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다. 금식기도 또한 30일 이상 더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 30일 만하면 그만 하라고 하여 30일 이상은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순종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자신 속의 죄가 너무도 미운 고로 나를 짓기에는 생활의 일환으로 무려 30일씩 금식 기도를 14번을 하였다. 그냥 금식 기도한 것도 힘든데 한 층 더해서 13 번째는 자갈 위에서 무릎을 꿇고 30일씩 금식 기도를 하였다. 기도할 때 어찌 정강이가 안 아프며, 칼날 같은 뼈찬들 힘이 정강이 살을 파고 들 때 피가 어찌 나지 않으며 핏이 안 들었겠는가! 그 무지막지한 고통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나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감행해 보았다. 또 마지막 14 번째는 유리 위에서 30일 금식 기도를 단행했다. 그 뾰족한 칼날 같은 유리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 때, 붉은 피가 낭자하게 흐르면서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피가 다 빠져 나오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죽이고 하나

님을 고도로 집착하는 것이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이 몸도 하나님의 것이니 고로 죽게 되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단행했다.

자갈 위에, 유리 위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어찌 아픈 통증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아픈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경지,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30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계속해서 아픔을 느꼈다면 30일 아니라 단 몇 시간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고도로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집착된 마음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그 아픈 통증을 잊었던 것이다. 하나님에게 집착하면 그 아픈 통증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터득하였기에, 하나님만을 고도로 사모하면서 집착을 하니 칼날 같은 유리도 살을 찢고 뼈에 박혔어도 아픈 통증을 잊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30일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고통을 잊어버렸다는 자체는 나 자신을 완전히 이긴 것이다.

그와 같이 자신을 이기는 금식 기도 생활을 한 번, 두 번 14번을 했어도, 또 역시 죄(마귀)가 들어와서 나라는 의식의 자리를 점령하는 거듭된 생활이 되었다. 사람이 죄에 매인 바 된 생



무지막지한 고통의 한계를 초월함으로써 나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감행했다

활 아래서는 양심적으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자신 속의 욕망의 영이 사그러들 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되지 않는 고로 마지막에는 밀실에 들어가서 다시는 나라는 의식의 마귀가 들어올 수 없는 투쟁과 연단을 받은 것이다. 그와 같은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과 연단을 일평생을 통해 나를 의식하지 않는 비결, 나를 버리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었다.

마귀 영의 흐름을 포착하다

옛날 소사 신앙촌 근처 광명리(지금의 광명시)에 정신 이상이 된 종열이 암마라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이 사람이 정신병을 고치려고 심방예배를 전도관 교인 몇 사람과 간 적이 있었다. 그 미친 여자를 뺨 돌려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종열이 암마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 나가려 하면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심하게 몸부림쳤다.

또한 영모님께서 축복하신 생수를 먹이려고 하면 "피! 피!"하고 소리를 지르며 기겁을 하고 먹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쓰며 난리를 피웠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보고 "애야! 이 애비가 죽이 타니 물 좀 떠와라." 하며 말투나 행동까지도 꼭 돌아가신 시아버지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또 좀 지나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풍장난 하자며 자기 행세를 하는 등 여러 사람들의 행세를 순식간에 바꾸었다. 이것을 보고서 마귀 영의 흐름을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영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조상들의 영(피)이 들어 있다. 그런데 현재 '나'라는 주체 의식의 영이 왕으로 군림하여 행세를 한다. '나'라는 주체 의식이 어찌다 어려운 일을 당해 고민 속에 깊이 빠졌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는 '나'라는 주체 의식의 영이 힘을 잃고 왕의 자리인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영에게 주체의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이것을 영의 쿠데타라고 하며 미친 사람 취급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미치는 것은 수많은 무수한 영들 중에서 다음으로 강한 다른 한 영이 왕의 위치에 와서 앉게 되는 것이다. 그때 왕의 위치에 앉게 된 영의

사람이 그 사람의 행세를 하다가, 다시 또 바뀌어 다른 사람의 영이 앉곤 한다. 이때 피의 쿠데타, 즉 영의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미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영이 수시로 바뀌어 살 때에는 평상시 밥 먹던 것보다 밥을 세 그릇 네 그릇을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는다. 그것을 보아 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배탈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다.

그리고 미친 사람은 며칠씩 굶어도 이상이 없는 것은 특이현상인데, 미친 사람을 고치려면 부드럽게 타이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보다 야단을 치고 고통을 가하게 되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이 견딜 수 없게 되어 하야(下野)하여 영이 바뀌는 것을 보았다. 때론 신통하게도 미친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의 마음 상태까지 알아맞추며, 더구나 그 사람에게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듯이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예배를 보고 나서 종열이 암마가 축복한 생수를 피라고 하며 먹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것을 억지로 막이 고, 다시금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나니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자기 정신으로 돌아왔던 것이다.*